

# 美당국, 암살미수로 수사...“총격범은 20세 남성”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을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피츠버그 사무소를 이끄는 케빈 로젝 요원은 이날 오후 총격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시(市)에서 한 브리핑 중 이번 총격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

로젝 요원은 총격범의 신원을 거의 확인했지만 100% 확실할 때까지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아직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격범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진을 분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로젝 요원은 이날 유세가 열리기 전에 감지한 위협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의 조지 비벤스 총경은 총격범의 신원을 잠정적으로 확인했지만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총격범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비벤스 총경은 현재 더 많은 위협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더라도 이번 총격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20세



## 경호 범위 밖 인근 사무용 건물 옥상서 AR-15 소총 쏘 당국 “사전 위협 감지 못해...단독범행 결론은 이르다”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유세가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

운티의 리처드 골딩거 검사는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사무용 건물 옥상에 있었으며 이 건물은 경호 범위 밖이었다

고 밝혔다.

유세에 참석하는 이들은 소지품에 무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지만 총격범은 유세장 밖에 있었던 것이다.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M-16 소총을 개조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으며 전국 무기 구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을 암살미수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총격 발생 직후 유세장 모습. /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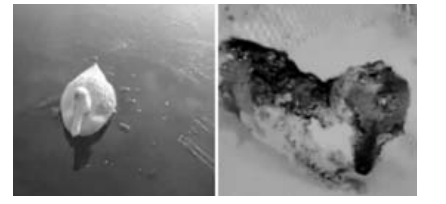
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비밀경호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중 오후 6시15분께 총격 용의자가 유세장 밖에 있는 높은 위치에서 무대를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범을 무력화했고 총격범은 숨졌다”면서 “유세를 지켜보던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남성이라고 비벤스 총경이 브리핑에서 확인했다.

비밀경호국은 “비밀경호국이 신속히 대응해 보호 조치를 했고 전직 대통령은 안전하며 (신체) 상태를 진단받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며 비밀경호국은 연방수사국(FBI)에 (이들)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FBI는 성명에서 “FBI 요원들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현장에 있으며 FBI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경호국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오리도 여우도 얼어붙었다” 아르헨티나 60년 만 강추위

60년 만의 강추위가 강타한 아르헨티나에서 극한의 이상 기후로 인해 살아 있는 동물들이 얼음에 꽂혀 얼어붙은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진)에 올라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 면적으로, 남극과 가까운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북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은 겨울에도 대체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지난 6월 말부터 이례적인 남극 추위가 아르헨티나의 전 국토를 덮치면서 실사판 ‘남미의 겨울왕국’이 펼쳐졌다. 아르헨티나 전역을 강타한 한파는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파도까지도 얼어붙게 했으며, 폭설로 칼라파타 지역의 양 100만마리와 소 7만마리도 폐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론이 전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도...지구촌 거물 암살 시도 잇따라

디종리·아이티 대통령 등 최근 몇년새 총격 사망 링컨·케네디 등 역대 미국 대통령 4명 총격에 희생

11월 차기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유세 도 중 공격돼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거물급 정치인을 겨냥한 그동안의 총격 사건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우선 미국에선 1800년대까지도 현지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암살이나 암살 시도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1865년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워싱턴DC의 한 극장에서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의 총탄에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암살된 대통령만 네 명에 이른다.

1881년에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정신질환자의 총에 맞아 숨졌고, 1901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무정부주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러스에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 하비 오스월드에게 저격당해 사망한 것이다.

암살 시도 사건도 적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1981년 워싱턴 시내에서 정신질환을 지닌 남성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았

으나 응급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28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도 연설 중 총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뒤 38대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는 살인미자 사이비 교주인 찰스 맨슨의 추종자 등에 2년 여간 두 차례나 암살 시도를 겪기도 했다.

최근 몇년 새 지구촌을 뒤흔든 전·현직 정상들을 겨냥한 공격도 잇따랐다.

2022년 7월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사제총기로 쏘아낸 총탄에 맞아 사망,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는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수도 포르토

프랑스의 사저에서 침입자들의 총탄에 살해됐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5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외곽 마을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가슴과 복부에 세발의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해 4월15일 와카야마현 유세 현장에서 폭발물이 투척되는 테러를 당했으나 다행히 폭발 전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2022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괴한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고, 같은해 11월에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유세 중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코펜하겐 광장에서 선거 운동 도중에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가벼운 부상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연합뉴스

## “배후는 정부내 비밀조직?” 근거 없는 음모론 ‘주의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총격의 배후에 대한 각종 거짓 정보와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트루스소셜과 갭(Gab), 팔러(Parler) 등 극우 성향의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번 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한 좌파 내 비밀 세력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했다. 엑스(X·옛 트위터)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도 이러한 거짓 주장들이 퍼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해당 게시글 모두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전문가들은 이번 일에 대해 수많은 허위 정보가 쏟아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中 첫 ‘전자비자’...1호 싱가포르인

중국 정부가 자국 최초의 전자 비자를 외국인에게 발급했다.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이 발급한 최초의 전자비자(e-visa)를 소지한 싱가포르 출신의 중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1시(현지시간)에 항공편으로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입국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비자로 중국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이었다.

중씨는 “전자 비자의 신청과 사용은 매우 편리하다”며 더 이상 종이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비자’로도 불리는 전자 비자는 전통적인 비자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관련 정보는 디지털로 저장되고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자에게 발급돼 여권에 기존 방식대로 비자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중국 국가미민국은 상하이 린강 자유무역구(FTZ)에서 전자 비자 발급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